트럼프 관세폭탄 터지는데… 파업 나선 현대차 노조

'트럼프發 관세폭탄' 현실화
노조 임단협 난항에 파업 돌입
"노사 힘 합쳐 돌파구 찾아야"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자동차그룹 본사 사옥.

현대차 노조가 2일 울산공장 노조사무실에서 올해 임협 교섭 결렬에 따라 실시된 조합원 파업투표의 개표를 진행하고 있다. /현대차

현대자동차가 '트럼프발(發) 관세폭탄'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는 가운데 노동조합마저 파업 수순을 밟고 있어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해 중국의 사드보복 여파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뒤 올해 어느정도 판매 회복세에 접어들었으나 잇따라 악재가 겹치고 있다. 현재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사측과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12일 부분파업에 돌입한다.

◆친환경차 미국 수출 깊은 고민

현대차는 자사 첫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코나의 전기차 버전인 '코나 일렉트릭(EV)'을 올해 3분기 미국 시장에 출시할 예정이다. 현지 세단 수요 감소로 지난달 두 자릿수 판매 부진을 겪은 가운데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는 전기차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다. 이를 통해 미국 자동차 시장 점유율도 높여갈 방침이다.

또한 코나 일렉트릭이 현대차 울산 2공장에서 전량 생산된다는 점에서 국내 생산 물량 확보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하지만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산 자동차에 대해 고율관세를 부과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들 전기차의 출시 시기를 놓고 고민에 빠진 상태다.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친환경차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지만 관세폭탄을 맞을 경우 현지 업체와의 경쟁력을 잃게 된다.

앞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수입 자동차와 부품이 미국의 통상 안보를 위협하는지 조사 중이다. 미국의 조사결과, 실제 수입차가 자신들의 경제를 위협한다고 판단할 경우 미국은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할 전망이다. 만약 미국이 수입 자동차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현대차의 친환경차 가격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설상가상, 파업에 발목잡힌 현대차

국내 시장에서는 완성차업계 1위 현대차가 수입차들의 내수 판매 증가로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노조의 파업으로 발목을 잡혔다.

현대차는 올 상반기 내수 35만4381대, 해외 188만519대를 더해 총 224만2900대의 글로벌 판매실적을 기록했다. 내수와 해외 판매는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각각 2.8%, 4.9% 증가하는데 그쳤다. 반면 같은기간 수입차는 19% 가량 판매량이 증가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노조는 사측과 힘을 모아서 돌파구를 찾기보다 파업을 진행하며 회사를 압박하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사측과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12일 1조 2시간, 2조 4시간 파업하기로 결정했다. 임협과 관련한 올해 첫 파업이자 7년 연속 파업이다. 노조는 이와 별도로 상급단체인 금속노조 총파업에 맞춰 오는 13일에도 1·2조 각 6시간 파업하고 상경 투쟁하기로 했다.

앞서 노조는 기본급 대비 5.3%인 11만6276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등을 회사에 요구했다. 조건없는 정년 60세 적용, 해고자 복직, 고소·고발 철회 등도 요구안에 포함됐다. 이에 대해 사측은 기본급 3만5000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금 200%+100만원 지급 등을 담은 일괄제시안을 이날 교섭 테이블에 올렸지만 노조는 거부했다.

노조는 여름휴가를 시작하는 28일 전까지 타결 마지노선을 19일로 보고 교섭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미국의 관세 위협 등 어려운 대내외 경영환경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파업을 결정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관세폭탄이 현실화되면 현대차로선 미국 공장을 늘릴 수 밖에 없다"며 "자연스럽게 국내 생산량이 감축되면서 노조의 일자리도 줄어들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현대차는 과거와 비교해 판매량 감소 등으로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노사가 힘을 합쳐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대기업들 잇단 호텔 진출에 고민 깊어진 국내 호텔업계

신세계 '레스케이프' 개관 앞둬
SK네트웍스 '여수 다락휴' 준비
호텔업계선 경쟁과열 우려 지적

JW 메리어트 서울 외관. /JW 메리어트 서울

신세계조선호텔의 첫 독자 브랜드 '레스케이프(L'Escape) 호텔' /연합뉴스

최근 국내 대기업 그룹들이 호텔 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 대기업의 잇따른 호텔업 강화로 그룹 이미지 제고 등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한편, 포화 상태에 이른 국내 호텔업계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중구 퇴계로에 새로 지어진 신세계조선호텔의 첫 독자 브랜드 부티크 호텔 '레스케이프'가 정식 개관한다.

신세계조선호텔은 이마트가 98%의 지분을 보유한 관광호텔 업체다. '레스케이프'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야심차게 추진하는 신사업으로, 19세기 프랑스 스타일의 부티크 호텔이다.

백화점 부문을 맡은 정유경 총괄사장도 호텔업 강화에 나섰다. 지난 2012년 복합건물 신세계센트럴시티 지분 60%를 인수하면서 백화점과 호텔을 함께 맡게 된 신세계는 8개월간의 공사 끝에 내달 20일 JW메리어트서울을 새로이 선보이게 됐다.

SK네트웍스의 최신원 회장도 내달 1일 워커힐 호텔앤리조트 콤팩트 고급 호텔 '여수 다락휴'를 선보인다. 글로벌 호텔 체인인 쉐라톤과 제휴를 중단하고, 지난해부터 독자 브랜드 운영에 나선 SK네트웍스는 호텔 사업 확장에 힘을 쏟고 있다.

새로 개관하는 '여수 다락휴'는 '다락휴' 3호점이다. SK네트웍스 워커힐은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1인 여행객을 위한 캡슐 호텔 '다락휴'가 큰 호응을 얻자, 지난해 말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 2호점을 오픈한 데 이어 여수에 3호점까지 선보이게 됐다.

회사 측에 따르면 '여수 다락휴'는 좁은 공간에 특급 호텔의 고급 서비스를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 효율성을 높인 서비스로 젊은 여행객들의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삼성그룹의 호텔 계열사 호텔신라는 장충동에 '전통 한옥 호텔' 신축을 추진 중이다. 2022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

CJ그룹도 경기도 고양시에 K컬처밸리를 조성하면서 호텔 건설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자체 브랜드로 호텔을 건설할지, 글로벌 브랜드에 운영을 맡길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업계는 대기업의 이 같은 행보가 주력 사업과의 시너지 효과, 이미지 개선 등을 위한 전략으로 파악하고 있다.

포화 시장에 접어든 지 오래인 국내 호텔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흘러 나온다. 대기업들의 잇따른 호텔 사업 확장으로 기존 호텔의 입지가 줄어들고, 경쟁 과열도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김민서기자 min0812@

SK하이닉스, 中에 파운드리 생산기지 건설

SK하이닉스시스템아이씨
우시산업집단과 합작법인 설립
내년 말 완공, 국내장비 순차 이설

SK하이닉스시스템아이씨는 중국 장쑤성 우시시에 200㎜ 웨이퍼 아날로그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을 건설해 중국시장 진출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SK하이닉스 자회사인 SK하이닉스시스템아이씨는 우시 시정부 투자회사인 우시산업집단과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하반기부터 공장 착공을 진행한다. SK하이닉스시스템아이씨는 200㎜ 반도체 제조장비 등 유·무형자산을 현물 투자해 합작법인을 운영한다. 우시산업집단은 공장 및 설비, 용수와 전기 등 인프라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에 건설되는 공장은 2019년 하반기 완공될 예정이다. 기존 충북 청주 M8 공장의 장비를 2021년 말까지 순차적으로 이설해 고객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SK하이닉스는 200㎜ 파운드리 생산기지를 중국으로 옮기는 것과 별개로 국내에서는 300㎜ 웨이퍼 CIS(CMOS 이미지 센서)를 중심으로 시스템반도체 사업을 추진한다. 200㎜ 파운드리 사업의 중요 연구개발 기능은 국내에 남겨 고부가·고기술 중심의 시스템반도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SK하이닉스시스템아이씨의 M8 공장은 고객의 주문을 받아 200㎜ 웨이퍼에서 110나노미터(㎚) 이상의 비교적 오래된 기술을 기반으로 아날로그 반도체를 생산해 왔다. 하지만 고객이 국내에 한정되어 있고 수익성이 낮아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최근 아날로그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는 중국 현지로 생산시설을 옮겨 다양한 고객을 확보하고 수익성도 높여 시스템반도체 사업에 대한 선순환 구조의 계기를 만들 계획이다.

한편 SK하이닉스는 메모리에 편중된 사업구조를 탈피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07년 200㎜ CIS 및 파운드리 사업에 진출했다. 작년 7월에는 파운드리 전문회사인 SK하이닉스시스템아이씨가 출범했다.

/안병도 기자 catchrod@

금융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안 제동

사외이사 외부평가 의무화 등
규제개혁위서 철회 권고

금융당국이 추진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 방안이 규제개혁위원회 단계에서 제동이 걸렸다.

11일 금융당국과 규제당국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회의에서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방안 중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 확대안과 사외이사 연임시 외부평가 의무화 방안에 철회 권고를 했다.

규개위가 반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안은 심사 대상을 기존 '최다출자자 1인'에서 '최대주주 전체(최다출자자 1인과 특수관계인인 주주 포함)와 그 밖에 지배력을 행사하는 대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 경우 삼성생명은 최대주주인 이건희 회장뿐 아니라 특수관계인이자 회사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재용 부회장도 2년마다 이뤄지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이 된다.

규개위는 "개정 필요성을 검토할 충분한 숙의 기간을 가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을 확대할 필요성도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사외이사 책임성 강화 차원에서 연임 때 외부평가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규개위는 철회 권고를 냈다. 형식적 운영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는 재심 청구의 실익이 없는 만큼 규개위 심사 결과를 일단 수용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 1면 '6월 취업자도…'서 계속

자영업자는 1만5천명 감소했다. 통상 제조업이 감소하면 자영업자는 증가하지만 지난달은 모두 줄었다.

통계청은 도소매업이나 숙박·음식점업 취업자의 감소 폭이 줄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의 관련성을 찾아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용률은 61.4%로 1년 전보다 0.1%p 하락했고, 실업자는 103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2만6000명(-2.5%) 감소했다.

실업률은 3.7%로 1년 전보다 0.1%p 하락했다.

청년(15~29세) 실업률은 9.0%로 1년 전보다 1.4%p 하락했다. 올해 3~5월 10%를 넘으며 고공행진을 했으나 지난달 공무원 시험이 끝나면서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세종=최신웅 기자 grandtrust@